

‘슈퍼스타’의 등장, 프로야구 판을 뒤흔들었다

KIA타이거즈 2024 정규시즌 결산

<6·끝> ‘너땀시 살아야’ 김도영

프로 3년 차에 눈부신 성장세
최초 월간 10홈런-10도루 기록
최연소·최소 경기 30-30 달성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 경신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올해 KIA타이거즈가 정규시즌 우승과 한국시리즈 직행을 확정 지을 수 있었던 데는 선수단과 프런트, 팬들까지 마음을 모아 삼위일체를 이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도영의 활약은 한국 야구의 판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KIA와 광주를 넘어 KBO 리그와 한국을 호령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활약, 모처럼 탄생한 셋별 중의 셋별 ‘슈퍼스타’의 등장이었다.

김도영은 올 시즌 141경기에 나서 타율 0.347, 38홈런, 40도루, 109타점, 143득점, 출루율 0.420, 장타율 0.647을 기록했다. 결정은 세 경기에 그치며 프로 데뷔



KIA타이거즈 김도영이 지난 6월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 더블헤더 1차전 4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류현진을 상대로 중월 솔로포를 터트리며 20홈런-20도루를 완성한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3년 만에 첫 풀타임을 소화한 시즌이었다.

데뷔 시즌인 2022년 103경기에서 타율 0.237, 3홈런, 13도루, 19타점, 37득점, 출루율 0.312, 장타율 0.362를 기록했던 김도영은 지난해 84경기에서 타율 0.303, 7홈런, 25도루, 47타점, 72득점, 출루율 0.371, 장타율 0.453을 기록했

다. 성장세는 있었지만 프로 무대 적응기와 부상 등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올 시즌 기록 순위를 살펴보면 프로 3년 차이자 첫 풀타임을 뽐낸 선수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득점과 장타율 선두에 오르며 타자와 투수를 통틀어 유일한 멀티 타이틀 홀더가 됐고 타율(3위)과 홈런(2위), 타점(공동 7위), 도루

(6위), 안타(3위), 출루율(3위) 등까지 시상 부문에서 모두 TOP 10에 진입했다.

더 놀라운 것은 김도영이 기록의 시즌을 보냈다는 것이다.

김도영은 4월25일 고척 키움전 5회초 선두타자로 나서 김선기를 상대로 중월 솔로포를 터트렸다. KBO 리그 사상 최초의 월간 10홈런-10도루 기록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어 6월23일 광주에서 열린 한화와 더블헤더 1차전 4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류현진을 상대로 중월 솔로포를 날리며 20홈런-20도루를 완성했다. 20세 8개월 21일의 나이이자 올 시즌 73경기 째로 최연소 2위와 최소 경기 공동 3위에 해당했다.

김도영은 7월23일 광주 NC전에서는 KBO 리그 최연소(20세 9개월 21일)이자 최소 타석 내주릴 히트 포 더 사이클을 만들어냈다. 1회말 안타부터 3회말 2루타, 5회말 3루타, 6회말 홈런까지 사이클링 히트를 차레대로 쌓아 올렸다.

기록 행진은 멈추지 않았다. 김도영은 8월15일 고척 키움전 5회초 1사 1루에서 앤마누엘 데 헤이스를 상대로 중월 투

런포를 날리며 30홈런-30도루를 완성했다. 20세 10개월 13일의 나이이자 올 시즌 111경기(팀 113경기) 만으로 KBO 리그 역대 최연소이자 최소 경기 기록이었다.

김도영은 지난달 8일 광주 키움전 8회말 1사 2루에서는 적시 3루타를 때려내며 올 시즌 100타점 째를 올렸다. KIA에서 30홈런-30도루-100타점-100득점을 달성한 선수는 김도영이 처음이다.

마지막 기록은 단일 시즌 최다 득점이었다. 지난달 23일 광주 삼성전 1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이승민을 상대로 중월 솔로포를 날리며 올 시즌 136득점 째를 생산, 2014년 서건창의 135득점을 넘어선 김도영은 시즌 막바지까지 7득점을 추가하며 143득점으로 기록에 마침표를 찍었다.

유일한 아쉬움은 국내 선수 최초의 40홈런-40도루 달성에 실패한 것이었다. 하지만 김도영은 “후회는 전혀 없다. 첫 시도였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음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며 새로운 기회를 기약했다.

한규민 기자 gyubin.han@jnilbo.com

전국체전 폐막... 광주·전남 선수단 풍성한 신기록 쏟아냈다

광주 금 38개... 종합 13위
전남 금 39개... 종합 12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광주와 전남 선수단이 풍성한 신기록을 쏟아내며 대회를 마감했다.

‘경남과 함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3만1205명(선수 2만1043명·임원 1만0162명)의 선수단이 출전한 경남 전국체전이 17일 경남 김해종합운동장에서 폐회식을 갖고 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49개 종목에 1424명(선수 1081·임원 343명)이 참가한 광주는 금 38·은 54·동 69개 등 총 161개의 메달을 획득, 총득점 3만1203점으로 종합 13위를 기록했다.

광주는 15명의 다관왕과 18명의 다연패, 한국신기록 1개, 한국주니어신기록 1개, 대회신기록 9개, 대회타이 기록 3개를 작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가장 두각을 드러낸 선수는 육상의 고승환(27·광주시청)이다. 고승환은 육상 4관왕(200m·400m 계주·1600m 혼성계주·1600m 계주)과 한국신기록 1개(1600m 혼성계주), 대회신기록 2개(200m·400m 계주)를 작성했다. 또 200m와 1600m 혼성계주, 1600m 계주의 2연패 달성에 기여했다.

체조 문건영(광주체고 3)은 금 3개(개인종합·철봉·평행봉)와 은 2개(도마·안마), 동 1개(마루)를 따냈다. 또 개인종합과 평행봉은 대회 3연패를, 철봉은 2연패를 일궜다.

육상 모일환(광주시청)은 육상 400m·1600m혼성계주, 1600m계주에서 금메달을 수확했고, 400m와 1600m혼성계주에서 2연패를 작성했다.



광주시청 고승환(왼쪽부터)·한정미·심재용 감독·강다슬·모일환이 지난 15일 경남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일반부 1600m 혼성계주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2연패에 성공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시청 육상팀 제공

역도 81kg 손현호(광주시청)는 용상·합계에서 2개의 대회신기록과 함께 2관왕·2연패를 기록했다. 양궁 오예진(광주여대 3)은 1개의 대회타이 기록(70m 343점)과 금 2개(70m·30m)·은 2개(50m·개인전)를, 근대5종 전운태(광주시청)가 금 2개(개인전 4종·계주 4종)와 은 1개(단체전 4종)를 거머쥐었다.

조정 쿼드러플스컬·더블스컬의 김정민(광주체고 3)과 조정 쿼드러플스컬·경량급더블스컬의 김지선(광주체고 2)·서에서(광주체고 3), 조정 더블스컬·싱글스컬의 김승현(광주체고 3), 육상 400m·1600m계주의 김국영·김태호·이재성(이상 광주시청), 육상 1600m혼성계주·1600m계주의 강희빈·장지용(이상 광주시청) 등도 2관왕을 차지했다.

육상 원반던지기 김지인(한체대 4)과 복싱 라이트웰터급 한영훈(광주동구청)은 3연패를 일궜다. 레슬링 여U18 자유형 76kg의 임선교(광주체고 3)와 남U18 그레코로만형 97kg의 이재혁(광주체고 2), 사격 센터화이어권총의 장대규(광주시체육회), 당구 포켓10볼 진혜주(광주당구연맹), 조정 여U18 쿼드러플스컬·더

블스컬·경량급더블스컬의 광주체고 조정 팀은 2연패를 기록했다.

사격 오준서·황의혁·오준영·김정현(이상 한체대)은 남대부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1877.4점의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양궁 안산(광주은행)은 여일부 30m에서 359점의 대회타이 기록으로 금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사격 박정은(전남여고 3)은 여U18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252.1점의 대회신기록으로 은메달을, 육상 이재성(광주시청)은 남일부 200m에서 20초53의 대회신기록으로 은메달을 각각 따냈다. 자전 거이주미·김효원·강현경·김옥희(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는 여일부 4km단체추발 예선에서 4분32초232로 대회신기록을 세운 뒤 결승에서 4분33초822로 은메달을 수확했다.

전남 선수단은 49개 종목에 1748명(선수 1130명·임원 618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금 39·은 38·동 79개 등 총 156개 메달과 총 3만2363점을 획득하며 종합 12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2명의 다관왕과 13개의 다연패, 한국신기록 1개, 대회신기록 6개, 대



FC목포 축구선수단이 17일 경남 김해대학교축구장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축구 남자일반부 결승에서 강릉시민축구단을 승부차기 끝에 4-2로 꺾고 우승을 차지 한 뒤 기뻐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회타이 기록 1개, 개인신기록 1개를 수립하는 성과를 냈다.

육상 이은빈(전남체고 3)이 3관왕·3연패와 함께 대회신기록 2개, 개인신기록 1개로 전남 선수단 중 가장 돋보였다. 이은빈은 여U18 100m 예선에서 11초80로 대회기록을 갱신했던 뒤 100m 결승에서도 11초76의 대회신기록으로 첫번째 금메달을 따내며 3연패를 일궜다. 200m에서는 22.44의 개인신기록으로 두번째 금메달을, 1600m계주에서는 신규라·최지선·박채경과 뛰며 3분50초81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세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400m계주에서는 47초40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육상 최지선(전남체고 3)은 금 2개(400m·1600m계주)와 은 1개(400m계주)를 수확했다.

육상 여일부 해머던지기(60m47)의 박서진(목포시청)과 우수 남일부 산타 56kg급 윤웅진(전남도청)은 6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댄스스포츠 라틴3종목의 김민수·김나연(순천시댄스스포츠연맹)과 우수 남일부 산타 60kg급 김민수(전남도청), 양궁

여일부 단체전의 순천시청(최미선·이은경·유시현·남수현)은 각각 3연패를 작성했다.

승마 대장애물의 권만준(전남승마협회)과 합기도 미들급 최준희(일부체육관), 레슬링 여일부 자유형 68kg 장은실(전남체육회), 육상 여일부 800m 신소망(나주시청), 복싱 여일부 플라이급 박초롱(화순군청), 씨름 남일부 장사급 140kg 김민재(영암군청), 광양여고 축구 등은 2연패를 기록했다.

롤러 박형상(전남롤러스포츠연맹)·이성건·송재연(이상 여주시청)은 남일부 계주3000m 예선에서 3분52초620으로 한국신기록(종전 3분53초928)을 수립했으나 충북, 강원, 충남에 이어 4위를 기록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사격 배상희(상무)는 여일부 50m소총 3자세에서 459.4점의 대회신기록으로, 사격 이아영(광양시청)은 여일부 400m에서 54초98의 개인신기록으로 각각 금빛 표적을 명중시켰다.

축구 FC목포는 결승서 강릉시민축구단과 승부차기 끝에 4-2로 꺾고 전국체전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동환 기자